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가 올 여름 극장가를 달구고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무기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어떤 저주에 의하여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큰 구렁이를 이룬다. 한강발원지인 검소수에 얽힌 전설에 의하면 이무기는 용이 되려고 기다리면서 인근의 가족들을 잡아먹다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무기라고 하면 단순히 용이 되려고 기다리는 구렁이라기보다는 끝내 용이 되지 못하고 구렁이로 머물러 버리고 마는 상태로 묘사된다. 흔히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를 두고서 이무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디워'에서는 착한 이무기와 악한 이무기로 대립각을 세워 서로 승천하기 위한 갈등의 관계를 전개시킨다. 선하거나 악한 이무기에게는 각각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 남녀 주인공과 부라퀴가 그것이다. 이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화려한 CG의 영상들이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의 상징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여자는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이무기가 승천할 때 꼭 필요한 여의주 그 자체이다. 여의주가 완전히 형성될 때 선과 악은 정체를 드러낸다.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현신이다. 결국 그녀는 선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은 보다 많은



불자 세상보기

이상호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연구원

'디워', 그리고 불교영화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녀에게 자신의 희생에 앞서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남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녀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가 가는 길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 남녀가 사랑하는 일이 어찌 저주가 될 수 있을까만 현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허다히 일어나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녀는 한 남자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과 속명적으로 주어진 초인간적인 희생의 갈림길에서 결국 그 남자를 따르는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몇 백 년에 걸

쳐 다시 거듭되는 윤회를 면치 못하게 되고, 용의 승천은 미루어져야 했으며, 중생구제의 세계도 요원하게 된다. 결국 그녀의 희생을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희생이다. 그의 사랑이 바로 '디워'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다.

따라서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선과 악의 대립각에 종지부를 찍고, 널리 중생구제를 서원하는 보살의 탄생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남녀 주인공의 초월적 사랑은 용의 승천으로 대변되는 더 높은 이상과 보살의 화현으로 표현되는 중생구제의 실현을 이루게 한다.

사실 이 영화가 불교적 세계관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불교의 포교를 위한 종교적인 영화도 결코 아니다. 변신술과 같은 초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도교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며, 전설을 차용한 것이나 부적을 벽에 붙이는 것은 민간신앙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기독교가 널리 퍼져있는 서양으로 그 무대를 옮겨 선과 악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을 영화의 곳곳에 장치함으로써 이 영화가 반드시 하나의 종교적 색채만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시대적 문화와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어느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주장하기 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초월적 이상과 그 실현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영화가 갖는 홍보 파급력은 매우 크다. 소위 뜬 영화의 경우 배우들의 말 한마디와 일거수 일투족이 다 마케팅의 귀한 자료가 된다. '디워'에 나타나는 종교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화가 영화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관객에게 영화를 공부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불교문화와 영상문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심포지엄도 있었다고 한다. 불교영화의 전성기가 한 번쯤 와 줄 날은 언제일까? 기다려진다.

불자의 눈

홍법사 문제 빨리 매듭지어야

의정부 홍법사를 둘러싼 잡음이 고소고발과 진상조사특위 구성 등으로 폭발했다. 관음중 소속이며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이하 교류협)가 관여된 홍법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관음중 총무원의 매매계약과 사찰 주지의 이전거부 등으로 문제를 키워 왔다. 결국 최근에는 홍법사 前 주지와 관음중 총무원장이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협도 진상조사특위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홍법사 문제의 배경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구간 공사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있다. 불교계 환경운동의 기폭제가 된 사패산 터널반대 운동은 세만금, 천성산으로 확산되며 수행환경과 개발논리의 첨예한 대립에 도화선이 됐다. 이 과정에서 홍법사는 종단미등록 사찰에서 관음중 등록사찰로 몸을 바꾸어 상당한 보상비와 이전비를 받았다.

남양주 봉선사의 경우도 도로공사로부터 지급 받은 피해보상금을 두고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관음중 총무원의 매각과 이전 처분 과정에서 前 주지의 반발로 불거진 홍법사 문제는 불교계 환경운동에 대한 시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다. 수행환경을 놓고 벌인 환경운동이 보상금을 둘러싼 자증지란으로 비쳐질 경우 이후 다른 상황의 환경운동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관음중과 교류협은 홍법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고 분명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영통사 순례 길 넓어질까?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가 정부와 종단의 엇갈리는 의견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달 영통사 성지순례를 월 1회 50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혔으나 최근에는 8월에 한해 3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8월 28일부터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가 띄우기용으로 받아들여는 견해도 있지만 천태종 일각에서는 이번이 보여준 유연성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눈치다.

천태종은 영통사 성지순례를 통해 종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다지고 종단 수위성도 확보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월 1회 500명이라는 제한선을 갖자 매우 난감해 하며 통일부와 다각적인 협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계의 성지순례를 포함한 대북교류는 경제교류나 관광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더구나 북한 주체자인 종단이 북한인 사찰을 성지순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방문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물론 남북관계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지순례라 하더라도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을 벗어날 수도 없다. 다만, 특별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지순례 자체를 확립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천태종의 입장에 공감해 간다.

아무튼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천태종의 영통사 성지순례 사업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마침 10월이면 조계종의 신계사 복원발사도 회향한다니 더욱 주목되는 일이다.

'종교자유' 칼럼

25. 정장식 前 포항시장 박광서 (서강대 불리학과 교수)

'聖市化 운동' 등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사회분열 조장

2004년도는 강의석군의 '예배거부' 사건과 이명박씨의 '서울시 봉헌' 사건 외에도 사회적으로 유난히 종교문제가 계속 불거진 시기였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종교감동을 부추겼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장식(사진) 당시 포항시장의 과도한 종교활동을 들 수 있다.

정 시장은 기독교 기관장 모임인 '홀리 클럽(Holy Club)'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독교화를 목적으로 한 소위 '성시화(聖市化 운동)'에 포항시 예산 1% 지원을 계획했다는 의혹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그는 2004년 5월 30일 1만5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가한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의 명예준비위원장을 맡아 신앙간증을 통해 "포항을 거룩한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언했고, 특히 성시화운동본부가 준비한 '행시기획안'에 '포항시의 재정과 교회, 개인의 수입에서 1%를 모금하여 교회 성장을 위한 기금 조성, 교회연합 모색, 사회선교, 세계선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명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9월 19일 포항 MBC 뉴스에서 포항시장 종교 편향 사건이 보도된 후 불교계는 뒤늦게 '종교 편향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실 확인과 성명서 발표, 그리고 12월 15일 2만5000명이 참석한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대회'라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어 정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무엇이 문제였다.

첫째, 국가 재정의 특정종교 지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둘째, 홀리클럽은 시 예산으로 복지 사업을 위해 출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디에 쓰느냐 못지않게 누가 쓰느냐가 문제다. 그런 공공사업비는 종교와 무관하게 시민대표들이 관리·집행해야지 왜 특정종교인들만 시 예산을 끌어다가 생색을 내는가. 간접적인 선교사업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셋째, 비록 미수료 그치긴 했지만, 시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소중환 시민의 웰페어를 개인의 종교활동에 사용하려던 발상은 우려와 유감 차원을 넘어 포항시민과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다.

둘째, 공직자의 홀리클럽 활동은 단순한 사적 신앙생활로 볼 수 없으며, 역시 '정교분리'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홀리클럽은 '성시화 운동 같이 기독교 정신을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각종 기독교 인사들의 모임'이다. 공직 신분인 정 시장의

홀리클럽 탈퇴, 대시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고, 그는 2004년 말 거센 항의에 못이겨 '최소화'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 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다. 날 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역을 하다는 태도를 보여 불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러한 결코 쉬운 관계는 2006년 4월 그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포항시장직을 내놓을 때까지 무려 1년 반 이상이나 계속되었는데, 정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했던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2년 5월에 창립된 포항 '기관장홀리클럽'은 당시 정 시장을 비롯, 이상득·이병서 국회의원, 공원식 시의회 의장, 김영길·박찬모 대



홀리클럽 탈퇴, 대시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 것은 당연하고, 그는 2004년 말 거센 항의에 못이겨 '최소화'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 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다. 날 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역을 하다는 태도를 보여 불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러한 결코 쉬운 관계는 2006년 4월 그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포항시장직을 내놓을 때까지 무려 1년 반 이상이나 계속되었는데, 정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했던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2년 5월에 창립된 포항 '기관장홀리클럽'은 당시 정 시장을 비롯, 이상득·이병서 국회의원, 공원식 시의회 의장, 김영길·박찬모 대

사ाम등록 및 행사모집

- ◆ 각 사아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 행사, 동자(에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사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저 하는 분은 이 곳 회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사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사 및 동자 자격기준

- ◆ 나이: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 ◆ 학력: 고졸이상
- ◆ 나이: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 ◆ 6개월 교육후 수계(에비스님)
- ◆ 문의: 총무실장 010-4802-5288 /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원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조계종 금강불교 입종안내

-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총무원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 사진 (내, 외부) 각 1장
- ◆ 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 ◆ 문의처
 - 휴대폰 010-9244-3358
 - 총무원 055-649-5959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 없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압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인한 효과를 입증한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 296-7806

동국대학교 육심학 강좌 안내

국가사, 기업사, 인간사를 통찰케 하는 강의!!! 이론과 임상사례를 병행한 생동감 넘치는 강의!!!

교 육담당 : 이우산, 고려육심학회장, [육심입문]저자

강 의특징 : 국가와 기업 운영자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를, 인생상담업 종사자에게는 핵심을 찌르는 피륙추질을, 일반인에게는 사회생활에서의 슬기를 통찰케 한다. 명리학이 인생을 조망하는 망원경이라면 육심학은 한 가지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길흉을 결론짓는 현미경이다. 또한 육심학은 출생 연월일시와 무관하게 묻는 족석에서 즉문즉답하는 학문으로 음양오행 이론의 꽃이요 열매이다.

개 강 및 강의시간 : 9월 4일 오후 7시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50분

원 서접수 및 등록 : 2007년 8월 1일~ 8월 31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8

강좌내용 문의 : 고려육심학회 카페 02)816-2115